



아시아권에서 예술특구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공간은 중국 북경 차오양구 다산즈 798과 대만 가오슝 옌청구 보얼예술특구다. 사진은 각각 랜드마크로 평가되는 798예술특구와 가오슝 보얼예술특구 일대 전경.



폐공장 건축물 리모델링 통해 ‘문화 거점’ 핫플로 안착

아시아 예술특구 AI시대 생존방식

〈3〉북경 798과 가오슝 보얼의 현재와 미래

‘아트공간과 상업공간’ 공존
특이한 거점 형성 불거리 넘쳐

2000년 들어 본격 구축 돌입
현재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

임대로 인상·특정 문화 쏠림
한계 포착 불구 경쟁력 여전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했네요. 기존에 있던 것을 살린 개념이죠. 갤러리와 상업 공간, 소통공간이 어우러집니다. 미술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는 중국 북경 798 예술특구를 동행했던 지역 대학 젊은 미술학도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느낀 소감을 들려준 멘트다. 이처럼 예술특구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자극을 안겨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이같은 예술특구가 아직 없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아시아권에서 예술특구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공간 중 하나가 중국 북경 차오양구 다산즈 798과 대만 가오슝 옌청구 보얼 예술특구다. 윤이 좋게 지난해 5월에는 북경 798 예술특구를, 그해 2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취재자 8월에 보얼예술특구를 잇따라 방문할 수 있었다. 우선 이들 예술특구는 사회주의 중화와 자본주의 중화가 나란히 한 곳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북경 798예술특구는 사회주의 중국의 무기공장들을 리모델링한 것이고, 대만 보얼예술특구는 컨테이너 창고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798예술특구는 1950년대 군수 공장 지대가 대형 복합 예술 단지로 재탄생한 곳이고, 2000년대 초 예술가들에 의해 작업실로 재활용되면서 형성된 중국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2002년부터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전시 공간이 마련됐고, 2006년 문화창의산업특구로 지정됐다. 보얼예술특구는 1973년 가오슝항 2호 부두에 일반적인 시멘트 창고들이 지어진 것이 시초이며, 2000년부터 정부와 예술가들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지구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 두곳 모두 30년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북경 798예술특구는 북경 인구 2000만 명이 하나의 인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대만 보얼예술특구는 270만명의 인적 배경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북경 798예술특구는 60만㎡ (18만 1500평) 규모이며, 보얼 예술특구는 20만㎡ (6만 500평) 규모로 추정된다.

798예술특구는 이중 10만㎡ 규모의 공간에 걸쳐 갤러리 200~400여개, 작업실 200여개, 문화관련 시설 300여개 등이 밀집해 있으며, 붉은 벽돌 공장 건물과 굴뚝 등 산업 유산을 보존하면서 UCCA 현대미술센터, 798 스타이쿰, 706 다창광, 바우하우스 건축군 등을 중심으로 갤러리, 작업실, 카페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보얼 예술특구는 처음 2개로 출발, 현재 26개 창고에 걸쳐 전시 및 창작 공간으로 옛 창고를 개조한 전시관 및 미술관, 예술가 작업실과 공방이 있으며, 판매 시설로

디자인 상점, 기념품 가게, 서점, 캐릭터 상품 매장 등이 있고, 야외 불거리로 벽화, 설치 미술, 캐릭터 조형물, 대형 로봇 조형물, 컨테이너 작품 등이 있다.

798예술특구는 과거 군수 공장 터의 저렴한 입주비와 넓은 공간의 이점을 활용해 예술가들이 동거를 톤 것이 그 출발점이 됐고, 보얼예술특구는 갤러리·카페·식당 등 상업시설과 예술 콘텐츠가 결합된 경우다.

798예술특구는 독특한 건축물과 화려한 벽화, 대형 추상 조각상 등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포토존을 제공하는 동시에 예술가들이 모여 창작 활동을 하며, 갤러리에서 예술가의 작업실을 공개하고 작품을 직접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보얼예술특구는 창고 구역이 대이, 대용, 봉래 등 3개 지구, 26개 물류창고로 구성돼 있으며, 각 구역마다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설 전시 외에 기획 전시, 야외 공연, 각종 페어와 축제 등이 수시로 열려 방문 시기마다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두 곳 모두 도시재생 명소로 거리 곳곳의 대형 조형물과 벽화, 산책 동선이 강점이며 사진 촬영과 느긋한 도보 관람에 적합한 곳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기대치가 높은 이면에도 불구하고 이들 예술특구는 새로운 실험대에 오르는 듯하다.

지난해 방문 당시 798은 부동산 공기업인 칠성그룹이 관할하고 있는 가운데 상업화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월세가 인상돼 작가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예술에 분명 방점이 찍혔지만, 예술이 상업으로 변질되는 단계에 놓여 있다는 빨간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다. 각종 공간이 엄청 비싸졌고, 갤러리보다는 건축이나 디자인 등의 회사가 입주하고 있었다. 798이 균열을 내고 있는 신호음으로 포착돼 어두운 그림자로 생각됐다.

이에 반해 보얼은 원형 건물을 보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너무 팝업스토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물이 지금 더 상시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장광방 교수(38·가오슝 스텐대학)는 보얼예술특구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들려줬다. 장 교수는 “컨테이너가 많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컨테이너 위주의 예술 문화를 많이 추구했다. 여기 현재의 문화를 볼 수 있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랜드마크 역시 철 조각으로 한 것처럼 철 조각이 조금 많다”면서 “가오슝에 이미 시립미술관이 있듯 보얼과 미술관은 기능이 다르다. 보얼은 미술관이 아니라 그냥 오가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접근해 친숙하게

아트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 보얼예술특구는 일반 국내외 방문객이나 가오슝 시민들이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들이 엄중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예술특구로서의 경쟁력을 지속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예술특구의 연간 방문객 수는 798이 1200만명(2024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보얼이 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엄청난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데 여전히 예술특구는 메리트가 크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물론 예술특구가 만능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방문객들을 유인할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 해당도시의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이야기이고, 상권 활성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예술특구를 앞서서 구축하지 못한다는 전형적 문화마인드 등 확신이 부족한데다 비용 대비 효과 저조 등에 근심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광주에 798이나 보얼 예술특구 같은 공간이 구축돼 있다면 명소와 핫플, 먹거리, 비엔날레, 문화전당 등과 연계될 경우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만 가오슝·고선주 기자 rainidea@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얼예술특구내 서점과 스터브스가 입점한 성품생활 전경.



작자 화랑 등을 둘러본 뒤 조금 이동해 만난 798예술특구 광장.



인터뷰 왕혜림 보얼예술특구 운영센터장

“환경 더 좋게 하며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갈 터”

초창기부터 특구 관련 업무 예술특구 산증인
처음 2개동서 26개동에 달해 외연 확장 주도

오늘날 아시아권의 대표적 예술특구로 꼽히고 있는 대만 가오슝 보얼예술특구. 예술특구로 명성을 얻기까지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현재 명성이나 유명세를 얻지는 못했을 터다. 보얼예술특구의 태동부터 현재까지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이는 총책임자인 왕혜림 보얼예술특구 운영센터장이다. 왕 센터장은 30년차 공무원 신분으로 주임이자 문화국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예술특구 사무실에서 만난 왕 센터장은 인

터부차 방문한 필자가 먼저 도착한 탓에 1층 로비에서 20여분을 기다린 끝에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첫인상은 굉장히 수려한 인물로 인식됐다. 뺏을 가리지 않고 포용적 자세와 경청하는 자세, 소통의 자세로 임했다. 그가 보얼예술특구가 언급되던 2000년대부터 보얼예술특구 관련 업무를 보며 한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배경을 유추할 수 있었다.

올해 20년 동안 보얼예술특구에서 관련 업무를 맡아왔고, 그중 10년 동안 책임자로 일해 왔다는 왕 센터장은 보얼에

술특구 태동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처음 2개동으로 시작해 26개 창고로 확장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차분하게 들려줬다. 왕 운영센터장은 “2000년도 가오슝시에서 문화 축제를 위한 장소를 찾고 있었다. 정부 사업들과 당시 예술가들이 보얼을 보고 이곳이 장소로 적합하다 했다. 예술가들은 여기 창고에 대해 약간 낯았다는 반응이었지만 이 공간이 너무 예뻐 다고들 했다.”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교통도 좋지 못했고,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정부 등이 나서 낯은 창고를 다시 리모델링해 특별한 예술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었다”면서 “지금은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연중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가오

슝시에서 큰 활동을 펼칠 경우 장소는 당연히 여기 보얼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얼예술특구의 의미에 대해 묻자 1995년부터 보얼에 있었다는 왕 센터장은 2006년부터 이곳 문화구를 맡게됐다고 답한 뒤 보얼은 처음에는 작은 배가 다니다가 그 뒤 큰 배들이 오자 작은 배들이 들어갔다고 회고했다.

그때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제한이 많았지만 예술가들이 보얼이라고 하는 장소를 알아보게 됐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낯이 가는 창고를 보고 너무 예뻐다는 반응들을 많이 보여줘

특별한 예술공간을 만들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왕 센터장은 “처음에 교통도 좋지 못했고, 시설도 좋지 못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은 거의 진짜 시작을 못했다. 2006년부터 제가 여기 일을 맡아 다시 시작했다. 그 당시 저는 이곳의 일이 너무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부터 2개, 4개 식으로 창고를 구축해나갔다 최종적으로 26개 건축물을 확보하게 됐다.”

보얼예술특구의 크기는 20ha (6만 500평)로 세 권역으로 나뉘었다”면서 “보얼 안에는 카페도, 식당도 있지만 연극관이나 서점 등이 있는데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주제는 꼭 창고 안에 얹어도 되며, 주말에도 사람들이 편하게 놀면서 즐길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왕 센터장은 매해 예술가들의 관심이 높은 보얼예술특구의 레지던시에 올해 300~400개인(팀)이 지원, 이 중 28~30개(팀)만 선정되고 있는 등 10년 동안 계속 해 와서 많은 나라 예술가들이 보얼예술특구를 알게 됐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지난해는 한국의 인현팀이 다녀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왕 센터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얼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만 가오슝·고선주 기자 rainidea@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